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금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앞장서서 생명을 체험함

성경: 창 2:7-9, 시 36:7-9, 요 12:24-26, 고후 4:10-12, 롬 8:13, 마 7:13-14

I.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재이시다—창 2:9, 요 1:4, 10:10, 14:6, 15:1, 6:35, 63, 고전 15:45하.

- A.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다—창 1:26-28, 31, 2:7-9.
- B.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절차의 목표이다—요 19:34, 롬 5:10, 골 3:3-4, 계 22:1-2.
- C.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흘러 나오셔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시 36:7-9, 계 22:1, 램 2:13.
- D.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생명이시다—요 14:9-10, 17-19, 6:63, 롬 8:2.
- E. 생명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이다—요 6:35, 57, 63, 마 15:22-27.
- F. 생명은 빛이고, 빛은 어둠을 이기며,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요 1:4-5, 시 36:8-9, 요 6:63.
 - 1. 우리가 생명을 접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곧 그 영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느낌이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요 6:63, 삼상 3:19-21.
 - 2.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느낌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 속에 빛이 있을 것이고, 이 빛은 생명과 그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 3. 우리가 이 느낌에 반응하여 주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면, 생명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의 움직임은 느끼게 된다.
- G.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과 힘과 빛남과 능력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교회는 생명의 결과이며, 생명은 교회의 내용이다—창 2:22, 요 19:34, 12:24, 고전 10:17.

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것뿐임을 보아야 한다—갈 1:16, 2:20, 4:19, 빌 1:19-21, 엡 4:13, 고후 3:18.
 -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B.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마 6:2, 5, 7:5, 23:13-29.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관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단순히 허락해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 가장 위중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롬 8:6, 요일 2:27, 비교 엡 3:1, 4:1, 6:20, 고후 2:12-14.
- D.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을 떨치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이 우리 안에 파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E.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마 16:24-25.

I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의 영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의 영과 협력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영과 상충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너울 아래서 산다.
- B. 첫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이다.
1.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들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다—비교 빌 2:5, 고전 2:16, 엡 4:23, 롬 12:2.
 2.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다.
 3.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질 때, 우리의 밖의 행동들은 우리의 속사람과 일치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반목이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느낀다—롬 8:6.
- C. 두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다.

1.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2.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3.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다. 처리받은 의지는 주님께 정복되고 부활하여 강하고 또한 유연하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빌 2:13.
- D. 세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감정의 문제이다.
1.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살후 3:5, 빌 1:8.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계 2:6.
- E.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데 참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파쇄되어야 하고, 매일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주요 부분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엡 3:16-17.

IV.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한다—마 7:13-14.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해 막힘없는 길을 닦는 것이다.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다—빌 3:10.
- B. 한 알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 안의 생명이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요 12:24-26.
- C.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게 된다—고후 4:10, 빌 3:10, 갈 2:20.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영을 통해 체험한다—갈 5:16, 24, 롬 8:13-14, 출 30:23-25, 빌 1:19.
- E.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일이 더 강할수록,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체험도 더 강해질 것이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그 영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후 4:11-12.
- F. 성령의 징계 또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수행한다.
 1.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령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롬 8:28).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한다.’ 첫째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영의 내적인 느낌을 읽어야 하며, 셋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안배하시어 모든 사물들과 일들과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만야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롬 8:28-29.
 2.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성하신 환경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 준다—고후 12:9.

V.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A.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골 3:4, 롬 8:10.
 - B.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 곧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C.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부인하게 된다—골 3:3, 갈 2:20, 롬 6:6,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 VI. “내 안에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라는 매우 무거운 부담, 매우 깊은 느낌이 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도, 많은 무게를 지니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져야 한다. ...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갈망하시는 일과 부합될 수 있다. ...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갈망, 곧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며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그들 역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갈망만을 가져야 한다. ... 우리의 일은 단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 곧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 주시기 원한다.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생명의 인식*, 98-99쪽.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취

십자가의 죽이는 것을 체험함

십자가는 죽음을 뜻한다. 십자가의 기능은 죽이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최종적인 정의는 죽음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안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효능과 죽이는 효능이 있다. 성령의 운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관한 진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간단하지 않으며 쉽지 않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처음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볼 때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한다. 이십 년 전 나는 서재에서 이 빛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매우 기뻐서 뛰었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타락하고 불법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거스르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며 구제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죽었다.”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나는 다만 믿었다. 그날 나는 죽었다. 이것을 봄으로 나는 너무나도 기뻐다. 심지어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고, 어떤 변화도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로 다시 살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실패했고 이전보다 더 잦은 실수와 더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비록 그날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히 보았지만, 후에 나는 나 자신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단지 죽음의 문을 통과한 것임을 보여 주셨고, 성령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죽음의 생활을 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날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은 바로 내가 본 죽음을 내 안으로 적용하고 작용되게 하는 것이었다. 내 안에서 죽음의 기능과 죽음의 효능이 발생했다. 이 기능과 효능은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죽였고 나의 각 부분을 죽였다. 오늘은 나의 감정을, 내일은 나의 주장을, 모레는 나의 생각을, 또 그 다음날은 나의 관념을 죽였다. 내 안에 있는 성분은 매일 죽음을 당했다. 성령은 내가 본 죽음의 십자가를 사용하여 내 안에서 죽이는 일을 하셨다. 게다가 내 안에서 성령의 죽이시는 일은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졌다.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 생활에 있어서 나는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하고, 행함에 있어서 나는 매일 십자가의 길 위에 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성분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가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형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와 주님이 함께 죽은 이상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자신이 죽었고 이미 끝났으며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했다 하자. 이것은 성령의 일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것저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이것저것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신기한 일은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는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마치 “이 생각이 너의 생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이러한 결정이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에서 나온 것인가? 이러한 기호와 이러한 미움이 주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물으시는 것 같다. 성령은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신다. 만일 그의 생각, 결정, 선택, 애호가 다 그 자신의 생각이고 그 자신의 결정이며 그 자신의 애호이면, 이때 성령은 그 안에서 매우 강하게 반응하시며 제재하시고 유죄 판결하시며 책망하실 것이다. 그 결과 그 형제는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빛 비추시고 책망하시므로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시인할 때,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죽이는 일이 수행되어 그의 주장과 의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어쩌면 그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유죄 판결하 실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장은 하겠지만, 그 주장에는 상처가 있고 그의 주장은 조금 변하였다. 성령께서 그 형제 안에서 죽이고 파쇄하는 일을 조금 더 이루신 것이다. 그가 다시 전진할 때 성령은 그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정복될 때까지 더 강하게 그 안에서 일하신다. 그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서 “주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의 주장, 의견, 생각, 선호가 십자가에 두어질 것이다. 십자가가 그를 관통하여 그의 선호와 의지와 생각과 온 존재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사상과 선호와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체험 후에 그는 조금 더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는 조금 더 많은 상처와 갈라진 금이 있게 될 것이다.

비록 그가 전과 같이 생활하고 길을 가고 있지만, 그는 십자가의 빛을 약간 보았고 십자가의 체험을 약간 하였다. 그가 가진 대부분의 성분이 전과 다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여전히 그의 성분이 있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중에 그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이 또다시 나온다. 그러나 죽음의 과정 또한 그 안에서 반복된다. 그가 십자가를 본 것에 근거해서 성령은 다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은 그를 유죄

판결하며 “이것이 너인가, 주님인가? 너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물으며 그를 정복하고 굴복시킨다. 그는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제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생각과 주장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다시 한 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한 번 십자가를 체험한다. 성령은 또다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십자가의 파쇄와 흔적은 그 안에서 더 깊어진다. 그 사람의 일부분은 또다시 파쇄되고 그의 성분의 일부도 또다시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그는 성령 안에서 매일, 조금씩, 모든 일에서 십자가를 체험한다.

십자가의 두 방면의 진리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두 방면으로 언급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다만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말하고 있다. 둘째,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24절)라고 말한다. 또 로마서 8장은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13절)라고 말한다.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종종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의 첫째 방면의 말씀만을 전하거나 혹은 둘째 방면의 말씀만을 전하는 위험이나 오류에 빠진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이루신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며, 다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진리의 한 방면일 뿐이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 한 방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는 다른 방면의 진리가 더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6절)이라고 말하지만, 8장은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13절)라고 말한다. 한 면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영으로써 죽이는 것은 성령과 우리, 우리와 성령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우리의 요소의 일부분인 육체를 죽음에 두는 것이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죽이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에 관해 빛 비춤을 받으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관문을 통과하게 한다. 그때부터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집행하시며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것을 유죄 판결을 하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책망하며 성령께서 죽음에 넘기신 것을 죽음에 넘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

십자가의 길과 생활

어느 날 내가 십자가의 빛을 보고 로마서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나는 참으로 기뻐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고 한 방면의 진리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둘째 방면의 진리를 보지 못했고, 아직 그다음 길을 가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냈고 해결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나 자신이 또 살아 있는 것을 보았다. 관문을 통과했지만 가야 할 길이 더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에게 관문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길을 가도록 성령의 인도가 필요했다. 성령은 매일 내 안에서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비추셨다. 나의 애호와 주장이 있을 때마다, 성령은 십자가의 빛을 사용하시어 내게 질문하시고 나를 유죄 판결하시며 책망하시며, 그것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를 보게 하셨다.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협력하기를 원하며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했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멘, 주님! 이것을 십자가 위에 놓고 저것 또한 십자가 위에 놓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죽음당하고 빛 비춤을 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협력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죽이는 일을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 조성되게 하신다. 이처럼 매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 성령을 통해 죽이는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요소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생활이며, 매일 우리 안에서 이뤄지는 성령의 인도이다.

한 형제가 십자가의 빛을 본 이튿날 아침 집에서 아내와 다투었다. 이런 다툼은 그의 타고난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아내와 다투는 때, 성령은 그 안에서 십자가의 빛 비춤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이냐, 너 자신이냐?”라고 물으신다. 많은 때 성령의 이러한 비춤과 질문으로 인하여 그는 십자가로 파쇄되고 더 이상 아내와 다투지 못한다. 성령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냐? 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네가 본 십자가의 빛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또다시 물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물으실 때 이 형제는 자연스럽게 화내지 않게 되고 다투지도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령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것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냐? 이것이 십자가의 빛을 본 것이냐?”라고 물으신다. 이렇게 되다보니 그가 버스에 타고 있어도 죄를 자백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겠는가? 성령을 거절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신다. 이러한 질문 후에 그는 주님께 복종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사과하며 죄를 인정한다. 사람이 체면을 지키면 그리스도는 없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죄를 자백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 계신 성령과 협력할 때 성령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체면을 죽이고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죽인다.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과 생활이다.

부활 생명을 가져오는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체험은 전부 보배로운 체험이고 죽음을 통과하는 체험이다. 죽음을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생명의 표현은 많아진다. 아내와 다투었던 그 형제는 예전에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뜻을 세우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생명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성령은 그 형제 안에 계시고, 그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 형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성령과 협력하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한 결과, 그 형제의 아내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 형제에게서 실재화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거기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

매일 조금씩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이며 또한 성령의 일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매순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 십자가도 강하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성령의 일이 없고, 성령의 일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안에 넣으신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후 4:11-12). 생명의 길은 죽음이며 죽음은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며 또한 죽음의 생활이다.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 아래서 살며 죽음 아래서 길을 간다. 이 죽음은 우리를 처리한다. 만일 우리가 파쇄되고 처리받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순조로운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99-107쪽)

성령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서 안배하시고 결정하시며 허락하시고 지시하신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징계'라고 한다. 성령은 우리를 파쇄하시기 위해 환경을 안배하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 우리의 배우자는 곧 우리를 파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때로는 배우자와 하나님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자녀를 더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도구인 배우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작은 도구인 두 아이를 사용하여 우리를 다루신다. 만일 둘로도 부족하다면 셋, 넷, 다섯을 더 주실 것이다. 어떤 때 아들만으로 부족하다면 딸을 더 주실 것이다.

모든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봄을 받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심으시고 온전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같은 중요한 것들이 모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어떤 일도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안배로 온 것이고, 어떤 일은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고 또 어떤 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자매가 있다 하자. 그 자매는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다. 아마도 그 아들의 이름을 '다름'이라고 지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의 어머니는 다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안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에는 성경과 성령, 교회와 성도들, 진리의 빛 비춤뿐 아니라 특별히 환경도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란다. 사실 환경이나 상황은 성령의 징계이다. 성령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가장 큰 도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중시한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환경은 중시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일과 사물도 중시하지 않는다.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한다.' 첫째,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영의 내적인 느낌을 읽어야 하며, 셋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을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고 영 안에 있는 느낌도 잘 읽어낸다.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과 일과 사물을 읽어내는 것은 소홀히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배우자를 주셨고, 왜 이러한 자녀를 주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내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많은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외우고 영안의 느낌도 예민하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는 읽어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며 환경을 그냥 지나가게 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의 환난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안배하신 큰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임

로마서 8장은 전적으로 성령에 대해 말한다. 8장 전반부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후반부 말씀은 환경과 환난과 고난 및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 것에 대해 말한다(28절). 영적인 인식에 있어서 성령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환경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는 목적은 사람의 동역을 얻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아질 때까지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갈망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게 된다(롬 8:26).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신다면, 이 기도와 탄식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도달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주위의 환경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어, 사람을 파쇄하시고 다루시는 일을 하심으로 사람을 변화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성령의 중보 기도와 일치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다루신다.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환경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를 파쇄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일어난다. 이것은 큰 징계이다.

바울같이 깊고 강하게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매일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그 가시를 자신에게서 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후 12:9)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으며 그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였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가시이고, 어떤 남편은 아내의 가시이며,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가시이다. 이것은 사람을 고난 받게 함으로 파쇄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이 변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속에서 분명해진다. 이 가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르고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환경이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이상하고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한 모든 것을 안배하셨는지를 아신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에게 환경과 압력이 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두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고 압력을 받으며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의 환난도 받게 된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징계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인 빛 비춤과 부름 그리고 환경의 외적인 압력의 목적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고개를 숙여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실수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실수하지 않으심을 인해 경배 드립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이때 우리는 내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떠받쳐 준다. 이럴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 공과를 잘 배운다면,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작용하여 매일 우리 자신, 우리의 애호와 주장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많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파쇄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생명을 얻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맺음말

우리는 참된 생명의 자람이 밖으로는 성경의 빛 비춤과 안으로는 성령의 협력에 달려 있고, 또한 우리에게 환경과 고난, 곧 성령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산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고난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일과 사물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진리가 해방될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일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외적인 환경을 안배한다. 이런 안팎의 일의 목적은 우리를 파쇄하고 복종하게 하며 다루기 위한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해방된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어떻게 살아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본 계시와 빛, 또한 밖에서의 성령의 징계,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수행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오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온다.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한 생명의 표현을 갖게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19-124쪽)